

여수 거문도 전지역,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

공원공단, 15일부터 본격 적용 모개도·연대도·여서도도 휴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여수시 거문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을 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로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터 생태·경관의 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오염도가 37% 감소하고, 생물건강성이 58%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10월 지역주민, 낚시어선 단체가 참여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고,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오염원도 제거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와 함께 해상해안국

립공원 내 오염·훼손이 심한 섬 3곳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를 3~5월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 섬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2곳(모개도·연대도)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1곳(여서도)이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섬 지역은 오염도 등에 따라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을 나누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은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

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전개한다. 거문도와 여서도의 경우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 보성서 4월30일~5월6일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 대회가 오는 4월30일~5월6일 보성다향체육관에서 열린다.

보성군은 지난 10일 군청에서 대한씨름협회와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김철우 보성군수,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이광수 보성체육회장, 김경열 보성군씨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2025년까지 3년간 보성군에서 열린다.

2023년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 보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한전, 농사용 전기 약관 개정” 곡성군의회 촉구

곡성군의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가 농촌의 현실을 모른 채 저온저장고에 김치·쌀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위반 위약금을 청구해 농민들을 시름에 빠트렸다”며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제25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폭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농민들에게 전기 사용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까지 청구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차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한 합리적인 농사용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한전은 사회 공공의 복리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인 만큼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美샌디에이고 항만 운영 견학 여수시 섬박람회 홍보단



미국을 방문 중인 여수시 섬박람회 홍보단이 세계적 수준의 미국 샌디에이고 항만청을 방문해 물류 등 운영사례를 견학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장 등 여수시 홍보단은 샌디에이고 항만청을 방문해 프랭크 얼타손 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개항 100년을 맞는 여수항 개발계획에 적용시키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수준 높은 샌디에이고 항만의 역사와 항만 부지 운영 상황, 수위사업 등의 견학을 교환했으며 항만 현장을 돌아보며 운영 상황을 살폈다.

홍보단은 항만청 직원과 항만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섬박람회 초청장과 함께 홍보 안내 책자를 나눠주며 남해안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알렸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19일까지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장에 매화꽃을 감상하러 온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양배 기자**

봄의 전령사 ‘광양매화축제’ 4년 만에 팡파르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4년 만에 열렸다.

광양시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지난 10일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 펼쳐진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대장정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광양, 구례, 하동, 곡성 등 섬진강권 4개 지자체장이 손잡고 섬진강 관광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섬진강 관광 시대 원년’ 선포식이 펼쳐져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정인화 광양시장 등 섬진강권

4개 지자체장, 시·군 의장을 비롯해 시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호 광양매화축제 위원장의 개막선언에 이어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섬진강권 4개 지자체장, 시·군 의장, 도의회 부의장 등이 비전과 축하 메시지로 힘을 보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년 만에 열리는 광양매화축제 개막과 섬진강을 공유하고 있는 4개 시군이 함께 열어가자 하는 섬진강 관광 시대 원년 선포식을 축하한다”면서 “영·호남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며 섬진강 관광시대를 만들어 가

자”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과 감동을 주는 관광수용태세로 관광객을 맞겠다”고 말했다.

제22회 광양매화축제는 ‘황금 매화·매실 GET’, ‘리버마켓@섬진강’ 등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열흘간 봄나들이 나선 관광객을 맞이한다.

광양을 서천과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를 평일 5회, 주말 7회 임시 운영하고 오는 18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녹화한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정원박람회 ‘가든스테이’ 예약 인기몰이

“순천만국가정원을 하루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2023순천만국가정원에 마련된 가든스테이가 예약을 시작하자마자 4월 주말과 평일 객실 절반이 완판되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가든스테이 순천, 실랑계’ (가든스테이) 예약 서비스가 시작된 10일 오후 6시 기준 4월 주말 숙박 전실이 매진됐으며, 전체 예약률이 50%를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주말 예약이 매진이 된 만큼 매일 1일에 3개월분의 예약 신청을 받겠다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5~6월에 대한 숙박 예약을 3월15일부터 선 오픈할 계획이다.



가든스테이는 2023정원박람회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에서 낭만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관람·체험·숙박·가드닝이 결합된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총 35개의 캐빈형 숙박동에서 하루 100여 명이 머무를 수 있다. 순천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

한 순천형 ‘K-FOOD DINNING’ 코스 메뉴로 와인 또는 지역 전통주를 반주로 즐길 수 있는 ‘순천만찬’이 준비되고 ‘순천만아침’은 순천의 탕요리로 만나는 아침 밥상이다.

만찬은 숙박 요금에 포함돼 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야식도 준비돼 있다. 부담없이 순천여행은 가볍게 출발하면 된다.

가든스테이에 2023정원박람회 입장권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박람회 기간에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또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가든스테이 예약은 검색창에 ‘실랑계, 가든스테이, 정원박람회’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숙박 예약 채널 페이지로 연결된다.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등 25개 예약 사이트에서도 순차적으로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순천=배서준 기자**

한국 난 명품 전국대회 화순군, 희귀란 등 1000여점



대한민국의 명품 난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회가 화순에서 열린다.

화순군은 18~19일 하니움 문화스포츠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30회 한국난 명품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화순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난문화협회와 화순난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에는 한국춘란, 풍란, 석곡, 한란, 희귀란 등 1000여점이 전시된다. 대상을 비롯해 우수작품 98점을 시상한다.

17일 출품 접수와 심사에 이어 18일 오후 2시 개회식을 한다. 전시회는 무료 관람할 수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

오천그린광장 어싱길 맨발걷기 순천시, 31일 체험행사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맞춰 오천그린광장 어싱길에서 맨발로 건강을 챙기는 걷기 체험 행사를 31일 개최한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걷기 행사는 맨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정 박사의 맨발 걷기 팁 전수와 함께 오천그린광장 어싱길 2.5km를 함께 걸어보고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참여자에게는 패헌수막을 활용해 만든 신발과 가방을 증정할 계획이다.

순천시민 8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싱길은 순천만습지, 국가 정원, 도심에 총 12km가 조성되어 있으며 숲, 물, 바다, 정원 치유의 기능을 주제로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져 시는 이와 접목한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